

한국어 교육에서 기능 통합 언어활동 제시의 효율성  
- ‘R-W’형<sup>1</sup> 언어활동을 중심으로 -

김보은\*  
대전대학교  
김희숙\*\*  
청주대학교

**Title:** *The Effectiveness of Functional Integration Language Activities in the Korean Language Education*

**Author:** *Kim Bo-eun, Daejeon University, Daejeon, Korea. Kim Hee-sook, Cheongju University, Cheongju, Korea*

**Abstract:** *This study aims to discuss the plans for integrated education of Korean language function to improve language ability of learners as a second language. For this purpose, presented the purpose, method of study and organization of discussion, reviewed the preceding studies related to this and clarified what this study aimed for. presented the learning model of the second language and the process of understanding and expression processing from aspects of the second language acquisition. The learning model of the second language presented was reflected in the language activities per type of language function integration proposed by this study.*

*This study finally proposed the optimal integration model of language function by actually applying the language activities per type of language function integration presented by this study, of Korean learners in education in universities.*

**Keywords:** *Korean language education, reading activity, writing activity, integration language activity*

**주제어:** 한국어교육, 기능 통합 언어활동, R-W 형 언어활동

## 1. 머리말

21세기,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최근 몇 년 사이에 한국어 교육의 수요가 현저히 늘어나면서 학습자 층이 매우 다양해졌다.<sup>2</sup> 그럼으로써 제 2언어로서 한국어는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다.

---

\* 제1저자 대전대학교 한국학센터 강사

\*\* 교신저자 청주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

<sup>1</sup> ‘R-W’형은 ‘읽기-쓰기’ 기능의 통합 형태를 말한다.

특히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요소는 언어활동이다.<sup>3</sup> 이는 언어가 우리 삶에서 이해와 표현의 도구이고, 관계 형성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어를 제 2언어로서 학습하고자 하는 한국어 학습자들에게도 이해 기능과 표현 기능의 통합 교육이 요구된다.<sup>4</sup>

현재 한국어 교육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대학 내 한국어 교육기관에서는 한국어 언어 기능을 통합하여 교수해야 한다는 통합 교육과정을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sup>5</sup> 특히, 수업 시간에 사용되는 한국어 교재의 경우, 새롭게 출간된 교재일지라도 과거에 출간되었던 것에서 그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다.

본고는 한국어 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학습자들을 위한 한국어 교재 또는 교육 과정<sup>6</sup> 등이 새롭게 구성하기 위해서 언어 기능 교

<sup>2</sup> 김희숙(2009:323~358)에서는 “통신과 교통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더불어 나라와 나라 사이의 시·공간이 크게 단축되어서 오늘날 어느 누구도 세계를 하나의 공통체로 부르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 우리는 세계화 시대에 살고 있다. 이는 다른 어느 시대보다도 화자가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 갈수록 요구된다는 의미이다.”라고 제시한 바 있다. 필자는 이 의견에 동감한다.

<sup>3</sup> ‘언어활동’은 말과 글로 표현하고 이해하는 행동을 뜻하여, 이때 사용하는 언어 기능이 바로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가 되는 것이다. 즉, 언어 기능을 활용하여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이다. 한국어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의사소통 능력 발전 또는 향상에 있다. 따라서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 비중 있게 다루어진 요소로써 언어활동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sup>4</sup> 이해영(1999)와 방성원(2000)은 실제 의사소통 과정이 총체적 언어 경험의 과정이라는 점에서 제2언어 수업에서 언어의 네 기능 통합이야말로 실제 언어생활에 접근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이재승(2004)는 모든 언어 기능들은 내적으로 관련되어 상호 보완적이고 한 영역(기능)의 학습은 다른 것을 돕는다고 밝혔다. 필자는 이 논의들에서 밝힌 의견에 동의한다.

<sup>5</sup> 한국어 교육 현장과 관련된 의견은 필자가 2014년 4월 14일부터 5월 9일 총 4주간의 한국어 교육 실습을 통하여 직접 확인한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는 언어의 4가지 기능인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라는 네 영역에 관한 학습과 관련하여 각 언어 기능 학습이 일방적이고 단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던 점, 특히, 각 언어 기능별 담당 강사가 따로 존재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겠다. 이는 한국어 교육 센터에서 통합 교육에 대한 인식과 현실 적용성이 낮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sup>6</sup> 교육 과정의 개념은 사용되는 맥락에 따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인식되는데, 동일한 용어로 사용되는 교육 과정을 나누어 보면 크게 1. 체제적 교육 과정(초등학교 교육 과정, 중학교 교육 과정 등), 2. 교과 교육과정(사회과 교육과정 등), 3. 특정학교 교육과정(○○대학교 국제교육원 한국어 교육 과정) 등의 전혀 다른 세 가지 범주로 구분된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 과정이 주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않겠으나 여기서 사용된 용어는 어떤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 특별 교육과정 같은 전체 교육 프로그램이 아니라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목표 및 급수별 세부적인 교수-학습내용, 평가 절차들을 포함하는 교육과정을 말한

육의 방향을 통합적인 측면에서 바라보기만 할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다. 실제 수업 시간에 언어 기능 통합 교육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주목할 것이다.

이에 본고는 언어 기능의 통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R-W’형 기능 통합 확장형인 ‘R-W-S’형에 속하는 언어활동을 제시하여 그 효율성에 대하여 밝힐 것이다.<sup>7</sup>

## 2. 최근 연구 검토 및 이론적 배경

### 2.1. 최근 연구 검토

<표 1> 언어 기능 통합 교육 관련 연구

연구자	언어 기능 통합 교육 관련 연구 한국어교육 <sup>8</sup>
김형근 (2002)	언어 사용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현행 한국어 읽기 교과서의 읽기와 쓰기 공통요소를 추출하고 총체적 언어 접근법의 활동을 적용하여 이해 능력인 읽기 기능과 표현 능력인 쓰기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읽기와 쓰기의 통합 학습 활동을 모색함.
김정숙 (2003)	학습 목적과 언어 기술을 분리하지 않고 한국어를 통합하여 교육하는 통합적 교육과정 개발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형태를 고려한 과제 중심의 한국어 교수요목과 통합적 교수요목의 구성 원리를 제시함.
김지영 (2007)	학문 수행 상황에서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관련 자료를 읽고 요약하는 과정이 전제되고, 발표하기 위해서는 발표문 작성과 발표문 내용을 메모하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에 보고서 쓰기와 발표하기를 통합적으로 다루는 것이 언어 본질에 접근하는 방법이라고 주장함.
김은혜 (2008)	통합적 언어 수업이 학습자의 읽기 능력 신장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통합적 언어 수업 ‘읽기-이야기하기-쓰기’를 구안하고, 현장 수업에 적용하여 그 효과성을 검증함.
이성희 (2008)	외국어 교육에서의 읽기·쓰기 통합 교육을 검토하고, 읽기·쓰기 통합 교육 방법인 CIRC(Cooperative Integrated Reading and Composition)의 연구 성과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하여 한국어 교육에서의 읽기·쓰기 통합 교육 방법을 제시함.

다. 이는 각 과별로 진행되는 어휘나 문법, 기능들의 세부항목에 대한 서술이 아니라는 점에서 교수요목과도 구별된다.

<sup>7</sup> 김보은(2014)에서는 대학기관 내 한국어 교육 기관에서 출간한 교재와 언어 기능의 통합 경향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면서 언어 기능 통합 유형을 크게 5가지와 세부적으로 13개의 언어 기능 통합 유형을 제시하였다. 그중 ‘R-W’형은 ‘읽기-쓰기’ 기능의 통합 형태로 상위 유형2에 속한다. 여기에는 언어 ‘R-W’형 확장형 1 ‘R-W-S’형과 확장형2 ‘R-W-S-L’형 하위 유형으로 제시하였다.

<sup>8</sup> <표2>에서의 ‘\*’ 표시는 학술지를 나타낸 것이다.

<b>이준호 (2011)</b>	대학이나 대학원에서의 쓰기 과제는 읽기 자료를 처리하고 이를 쓰기 과제에 반영하는 과정을 수반하기 때문에 일반 목적 한국어에서의 쓰기와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읽은 후 쓰기 과제의 특성과 이 과제의 수행 단계에서 필요한 과제 수행 전략을 제시함.
<b>조영철 (2011)</b>	동일하게 한국어 교육에서 읽기와 쓰기를 통합하여 지도하기 위해 이미 국어 교육에서 이루어진 바 있는 CIRC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한국어 교육에 적용하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두며 논의함.
<b>최유하 (2012)</b>	학부 강의 중 PPT 발표를 해야 하는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들을 위한 과제 중심의 읽기·쓰기 통합 교육 방안을 제시하고 실제 수업 모형을 제시함.
<b>강숙희 (2013)</b>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서 읽기와 쓰기 능력을 기르는 데 효과적인 통합 교재 개발에 관한 방안을 제시하는 목적을 두었다. 그리고 한국어 교재를 중심으로 분석 과정을 거쳐 읽기와 쓰기 통합 교재의 필요성을 도출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 읽기·쓰기 교재 구성 방안을 마련함.
<b>박진희 (2013)</b>	기존의 한국어 듣기 교재에 나타난 듣기 활동들이 과연 학습자들의 정확성과 유창성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또는 듣기 활동에 몰입할 수 있게 하는지 알아보면서 듣기 활동과 다른 언어 기능의 조화가 잘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또한 여기서 발견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듣기 활동을 모색함.
<b>정운규 (2013)</b>	학문 목적 한국어 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는 언어 기능 통합 과제의 유형을 제시함으로써 학문 목적 한국어의 교육내용 선정과 교육적 과제 개발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 마련에 초점을 두어 논의함.
<b>백아영 (2014)</b>	듣기와 타 영역간의 연계성, 읽기와 타 영역간의 연계성 연구를 통하여 언어 기능 통합 교육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논의함.

위의 <표 1>은 2000 년도부터 2014 년도에 이루어진 언어 기능 통합 교육 연구를 정리한 표이다.<sup>9</sup> 이상의 선행 연구의 흐름을 볼 때, 언어 기능 통합 교육과 관련된 논의들이 최근까지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선행 연구들에서 부족하고, 고려해야 할 사항을 크게 2 가지로 제시하여 밝히면 다음과 같다.

<sup>9</sup> 언어 기능 통합 교육과 관련된 논의는 김정숙·원진숙(1992)에서 한국어 교육의 목표를 보다 확대된 의미의 의사소통 능력 계발에 두고, 문법적 정확성과 유창성을 동시에 고려하며 언어의 네 가지 기능을 조화시켜 교육하는 통합 교육론을 제시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었다. 김정숙·원진숙(1992)에서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네 가지 기능이 한국어 교육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소홀이 다루어져서는 안 되며, 네 가지 언어 기능이 조화롭게 배양될 수 있는 통합적 교수요목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학습 초기 단계에서는 한국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소통적 가치와 보다 긴밀하게 연결되는 듣기와 말하기 능력의 배양에 상대적인 비중을 두어 교육을 실시해야하며 학습단계가 높아짐에 따라 읽기, 쓰기의 상대적 비중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첫째, 언어 기능 통합 교육에서 언어 기능 통합 형태가 대부분 ‘읽기-쓰기’라는 것과, 이를 중심으로 한 교육 방안에 관한 논의들이 주를 이루었다는 것이다.<sup>10</sup> 그러나 읽기 또는 쓰기 외 언어 기능들도 통합하여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제 2 언어 습득론적 관점에서 이해 및 표현 처리 과정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고, 네 개의 언어 기능 중 하나의 기능이 생략 또는 삭제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네 개의 언어 기능이 상황 맥락에 따라 입력 기능과 출력 기능이 선택되어 수행되기 때문에 ‘읽기’와 ‘쓰기’ 기능의 통합 외에도 다양한 언어 기능 통합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언어 기능 통합 교육의 실용 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읽기-쓰기’ 기능의 통합 교육만으로는 언어 기능 통합 교육에서 한계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말하기 기능과 듣기 기능도 언어 기능 통합 교육에서 반드시 수행되어야 할 언어 기능으로써 교육 방안을 제시할 때 고려해야 한다.

둘째, 언어 기능이 통합될 때 ‘읽기-쓰기’와 같이 2 개 기능이 통합되는 경우 이외에도 3 개 이상의 기능을 통합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좀 더 복잡한 언어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이를 달리 말하면 기존의 연구에서는 다양한 언어 기능의 통합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논의를 하였다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복잡한 상황과 다양한 언어 기능 통합의 가능성은 상호적 의사소통 활동이 이루어질 때 또는 특정 언어 상황에서 언어활동을 수행할 때 요구되는 언어 기능들의 다양성을 뜻한다.

그러므로 본고는 언어활동에서 사용 가능한 언어 기능 또는 반드시 요구되는 언어 기능에 주목하여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 2.2. ‘언어 기능 통합 교육’의 개념 및 특성

Goodman(1973)과 Freeman(1992)을 비롯한 학자들은 모국어가 아닌 제 2 언어나 외국어로 영어를 배우는 어린이들에게 처음부터 음성언어와 문자언어를 함께 지도함으로써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영역의 4 가지 기능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O'Malley & Pierce(1996)에 의하면 ‘통합’이란 ‘언어 기능들의 통합, 혹은 내용 영역 간 지식과 능력들의 통합’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

<sup>10</sup> 이재승(2004b:276)에서는 읽기와 쓰기는 비슷한 사고 작용을 필요로 한다는 점, 스키마를 공유한다는 점, 비슷한 언어 처리 과정을 거친다는 점, 언어 지식과 구조가 연관된다는 점, 공통된 어휘 기반을 가진다는 점 등에서 공통성 또는 관련성이 높아 읽기 쓰기 통합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다.

언어 교육에서 ‘통합’의 개념과 층위는 학자들마다 정의하는 바가 달라, 한마디로 정의 내리기가 어렵다.<sup>11</sup> 그런데 민현식(2008)에서는 ‘통합’의 개념을 대체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기능을 통합적으로 훈련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언어 기능 통합 교육’의 개념을 아래의 <표 2>와 같이 제시하겠다. 그리고 아래의 <그림 1>과 같이 ‘언어 기능 통합 교육’ 모형을 도식화하여 제시하겠다.

<표 2> ‘언어 기능 통합 교육’의 개념

‘언어 기능 통합교육’이란, 언어의 네 기능인 ‘말하기(Speaking), 듣기(Listening), 읽기(Reading), 쓰기(Writing)’ 기능을 인위적으로 분리하지 않고 유기적인 활동을 통하여 언어 내용에 초점을 두어 교육함으로써 학습자들에게 자연스러운 언어 사용을 인식하게 하여 언어 사용 능력을 효과적으로 길러주는 교육.

**■ 언어 기능 통합교육(Whole Language Approach)**

<그림 1> 언어 기능 통합 가능성 도식화



<sup>11</sup> 한편, 김정숙(2003)에서는 ‘통합’을 ‘어휘, 문법, 발음, 문화,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내용, 언어 기술 통합’, ‘일반 목적, 학문 목적, 업무 수행 목적 등의 목적별 통합’을 함께 일컫는 용어로 사용하였다. 이재승(2006)은 연계 지도는 기본적으로 언어 기능들을 대등, 혹은 독립적인 것으로 파악하되 이들 간의 관련성을 고려한 지도라고 하였다. 연계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들 언어 기능들이 내적인 연관성을 가진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고, 그 연계 지도를 통하여 상승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는 통합을 하되 각 기능의 영역을 인정하며 통합을 연계적 통합 방법을 제안하였다.

<그림 1>에서 보이는 언어의 네 기능 중 ‘말하기(Speaking)’는 ‘인지적 작용 과정으로서 상황과 화자의 감정적 또는 정서적 상태의 측면에서 상대방의 말을 듣고 판단하여 자신의 의도에 맞게 표현하는 행위’를 뜻한다. ‘듣기(Listening)’는 ‘청자가 귀를 통하여 들어온 음성 정보를 인지적 과정을 통하여 이해하고 재구성하며 대응하는 일련의 언어 행위’를 뜻한다. ‘읽기(Reading)’는 ‘독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배경지식을 이용하여 글쓴이가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를 이해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을 뜻한다. ‘쓰기(Writing)’는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 느낌 등을 단순히 단어만을 연결하여 문장을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만들어 가는 행위’를 뜻한다. ‘언어 기능 통합 교육’은 바로 이상의 네 개의 언어 기능을 개별적인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그리고 언어활동을 수행할 때에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학습자들이 자연스러운 언어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렇게 언어 사용 능력을 효과적으로 길러주는 것으로까지 연결되도록 하는 것이다.

<표 3> ‘언어 기능 통합 교육’ 구성 성분 분석<sup>12</sup>

연구자	실제성	협동 학습	목적		지원	기능 통합	
			의사 소통	사고		이해 중심	표현 중심
김정숙·원진숙 (1992)	+	+	+	+	+	+	+
김형근 (2002)	+	+	-	+	+	+	-
김정숙 (2003)	+	+	+	+	+	+	+
김지영 (2007)	+	+	+	-	+	-	+
김은혜 (2008)	+	+	-	+	+	+	-
이성희 (2008)	+	+	-	+	+	+	-
이준호 (2011)	+	+	-	+	+	+	-
조영철 (2011)	+	+	-	+	+	+	-

<sup>12</sup> 김보은(2014)에서 재인용.

최유하 (2012)	+	+	-	+	+	+	-
강숙희 (2013)	+	+	-	+	+	+	-
박진희 (2013)	+	+	+	-	+	-	+
정운규 (2013)	+	+	+	+	+	+	+
백아영 (2014)	+	+	+	+	+	+	+

위의 <표 3>은 ‘언어 기능 통합 교육’의 구성 성분을 크게 5 가지로 추출한 것이다. 각 구성 성분들에 대한 정의 및 특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실제성’이다. 실제성은 언어활동이 현 실생활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함을 말한다.

둘째, ‘협동 학습’이다. 언어는 의미를 형성하여 문자 또는 음성으로 전달하는 도구이다. 여기서 의사소통과 언어적 사고가 언어활동에 의해 학습된다고 볼 때, 한국어 교사는 학습자가 상호작용하여 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의사소통이 필요한 언어활동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해 교사는 개별 학습이 아니라 짝 활동 또는 그룹 활동을 통하여 학습자들이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상호적 의사소통 활동을 활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언어 기능 통합 교육의 ‘목적’이다. 언어 기능 통합 교육의 목적은 크게 ‘의사소통의 목적’과 ‘사고의 목적’으로 구분하여 제시할 수 있다. 여기서 전자는 학습자가 특정한 언어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언어 기능을 통합하여 사용하면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후자는 언어는 새로운 개념과 생각을 구성하거나 반영하고 언어를 통하여 이해를 하고 출력하는 과정, 즉 텍스트를 읽거나 이야기를 들은 후, 이해한 내용을 표현하기 위해 말하고 또는 쓰는 행위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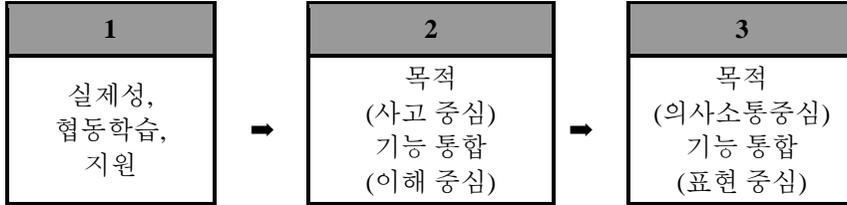
넷째, ‘지원’이다. 학습자가 제 2 언어로서의 한국어를 통하여 사고하고 의사소통을 위해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는 다양한 학습 매체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학습 매체에는 주로 라디오, TV, 빔 프로젝트 등과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를 활용하는 것은 언어의 네 기능을 모두 고루 사용한다는 것이 전제가 된다.

다섯째, ‘언어 기능 통합’이다. 언어 기능 통합은 ‘이해 중심 기능 통합’과 ‘표현 중심 기능 통합’으로 구분하여 제시할 수 있다. 여기서 전자는 교육적 관점이 듣기와 읽기 기능 중심에서 비롯된 것을 말하고, 후자는 교

육적 관점이 말하기와 쓰기 기능 중심에서 비롯된 것을 말한다. 즉 이해 중심 기능 통합이든 표현 중심 기능 통합이든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기능 중에서 최소한 두 가지 이상의 언어 기능을 통합하여 언어활동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sup>13</sup>

이처럼 언어 기능 통합 교육을 이루는 구성 성분들이 다양한 가운데, 연구자들 사이에서 공통적으로 지향하고 혹은 추구하는 구성 성분이 존재하였다. 본고는 <표 3>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언어 기능 통합 교육’의 구성 성분이 차지하는 정도를 아래의 <표 4>와 같이 제시하였다.

<표 4> ‘언어 기능 통합 교육’ 구성 성분 가치 정도



언어 기능 통합 교육의 구성 성분들 중에서 ‘언어 기능 통합 교육’이라는 개념에서 차지하는 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구성 성분은 첫째, 언어활동이 실생활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구성되어야 하는 것에 초점을 둔 ‘실제성’이다. 그리고 성분과 의사소통과 언어적 사고가 언어활동에 의해 학습된다고 볼 때, 한국어 교사가 학습자들의 상호작용하여 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둔 ‘협동 학습’ 성분, 한국어 교실 현장에서 필요한 다양한 학습 매체가 구비되어야 하는 것에 초점을 둔 ‘지원’ 성분이 차지하는 바가 동일하였다.

둘째, 나타난 구성 성분은 언어 기능 통합 교육 목적 중 이해 및 표현 처리 과정을 거쳐 언어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사고 중심’ 성분이다. 그리고 언어활동을 수행할 때 듣기와 읽기 기능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이해 중심 기능 통합’ 성분이다.

셋째, 언어 기능 통합 교육 목적 중 학습자가 특정 언어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언어 기능을 통합하여 사용하며 상호적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는 ‘의사소통 중심’ 성분이다. 그리고 언어활동을 수행할 때 말하기와 쓰기 기능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표현 중심 기능 통합’ 성분이다.

<sup>13</sup>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흐름을 찾아볼 수 있다. 현재까지는 주로 이해 중심의 언어 기능 통합 교육에 관한 논의들이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해 중심의 언어 기능 통합 교육뿐만 아니라 표현 중심의 언어 기능 통합 교육도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해 영역과 표현 영역의 전 반을 아우를 수 있는 언어 기능 통합 교육에 관한 논의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준다.

본고는 이상에서 살펴본 ‘언어 기능 통합 교육’의 개념과 구성 성분을 고려하여 아래에서 ‘R-S’형 기능 통합 언어활동을 제시하고자 한다.

### 3. ‘R-S’형 기능 통합 언어활동 제시

본고는 앞서 “‘언어 기능 통합 교육’을 ‘말하기(Speaking), 듣기(Listening), 읽기(Reading), 쓰기(Writing)’ 기능을 인위적으로 분리하지 않고 유기적인 활동을 통하여 언어 내용에 초점을 두어 교육함으로써 학습자들에게 자연스러운 언어 사용을 인식하게 하여 언어 사용 능력을 효과적으로 길러주는 교육”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이렇듯 제 2 언어 학습자들이 언어활동을 수행할 때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기능을 통합하여야 한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 제 2 언어 습득론적 관점에서 이해 및 표현 처리 과정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고는 VanPattern(2004)에서 밝힌 제 2 언어 습득 과정에 대하여 살펴보겠다.<sup>14</sup>

#### 3.1. 제 2 언어 습득론적 관점에서 이해 및 표현 처리 과정

아래의 <그림 2>는 VanPattern(2004)에서 밝힌 제 2 언어 습득 과정이다.

<그림 2> 제 2 언어 습득 과정(VanPattern, 2004)

언어 입력 → (입력처리) → 수용(체계변화) → 언어발달체계(접근) → 언어

제 2 언어 습득 관점에서 ‘언어 입력’은 ‘입력 처리 지도(input-processing instruction)’에 의해 설명된다. 여기에서 ‘입력 처리(input-processing)’는 ‘입력(input)’단계에서 ‘수용(acceptance)’단계 사이에서 일어나는 ‘언어 처리 과정(language processing mechanisms)’이다. 다시 말하면, 학습자들은 언어 이해에 있어 받아들이는 입력 중 ‘이해 가능한 입력(comprehensible input)’을 중심으로 ‘수용’하게 되는데, 이러한 ‘수용’이 일어나는 과정이 바로 ‘입력 처리’가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수용’에서 ‘언어 발달 체계’사이에 나타나는 ‘체계 변화(system change)’는 문법적 형태 및 구조 즉, 문법 지식을 이용하는 것인 ‘조정’과 수용에서 언어 발달 체계로 통합하는 것인 ‘재구조화’로 나타난다. 또한, ‘접근(Output processing)’은 암시적 지식을 어떻게 사용하여 실제 발화에서 출력하는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입력 처리 교수’에서는 학습자들이 입력을 성공적으로 하였는지에 대한 의문을 두고 입력 자료에서 학습자의 ‘이해 측정’을 기반으로 한 ‘수용 증

<sup>14</sup> VanPattern(2004)에서 제시한 제2언어 습득 과정에 대한 논의는 오지혜(2011) 재 인용.

심 선택(reception-based options)'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는 '언어 이해' 측면에서 언어 기능 통합 유형에서 읽기 기능 또는 듣기 기능으로부터 시작되는 언어 기능 통합 교육적 관점과 관련된다.

제 2 언어 습득론<sup>15</sup>에서는 학습자의 언어 습득 과정이 크게 지각된 입력(apperceived input) → 이해된 입력(comprehended input) → 수용(intake) → 통합(integration)의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고 본다. 이러한 습득 단계는 일련의 언어 처리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언어 처리를 위해 언어 습득의 다음 단계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변수가 존재한다. 먼저, 입력에서 이해된 입력 간에도 빈도, 선행지식, 정의적 요소, 주의의 요소가 변수로 작용한다. 다음으로 이해된 입력에서 수용 간에는 협상 및 조정, 수용에서 통합 간에는 가설 형성-검증, 기각-조정-확증의 인지 작용이 요구된다. 또한, 통합에서 출력 간에는 개인적 요소, 언어방식(구어/문어), 상황이 고려된다.

언어 습득 과정에 있어서, 주어진 입력 가운데 주의를 기울이게 하는 '언어의 단편'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작업은 습득의 첫걸음이 된다. 이와 같은 언어 습득의 최초 단계를 '알아차리기(noticing)'라고 한다. 학습자의 '알아차리기' 단계는 제 2 언어 습득 모형 중 '지각된 입력(apperceived input)'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지각(apperception)은 하나의 사물에 대해 새롭게 관찰된 자질이 과거의 경험과 연관되도록 하는 이해의 과정이다. 이때 과거의 경험은 일종의 '선행지식(prior knowledge)', '학습자의 선택적 주의력(selective attention)'이 있다. 형태와 의미 측면에서 언어에 대한 인식 혹은 지각은 '부각성(saliency)'을 통하여 이루어지면, 이는 소위 '입력 강화(input enhancement)'의 문제와 직결된다. 즉, 학습자들은 지각된 입력 단계에서 자신들에게 유의미한 언어 형태 또는 의미에 선택적 주의 집중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형태와 의미에 있어서 '두드러짐(salience)', 즉 '부각성(saliency)'은 핵심적 요소이다. 이로부터 학습자의 언어 습득 과정에서 '입력 강화(input enhancement)'가 이루어지는데, 이는 다음의 '이해(comprehension)'와 '수용(intake)' 단계로 이어진다.

학습자가 알아차린 언어 형식과 내용은 모두 습득되는 것이 아니며, 우선적으로 언어 형식에 대한 의미가 이해되어야 한다. 입력은 의미 있는 문맥 중에 제시되며, 메시지 전체의 대략적 의미는 이보다 앞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 특히 이 단계에서는 '주의'를 기울인 언어 형식의 의미에 대해 맥락을 통한 '타협(negotiation)'이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 다시 말하면 맥락적 의미 타협과 조정을 통하여 언어 의미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언어 구조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지며, 이 단계에서의 입력 상태를 '이해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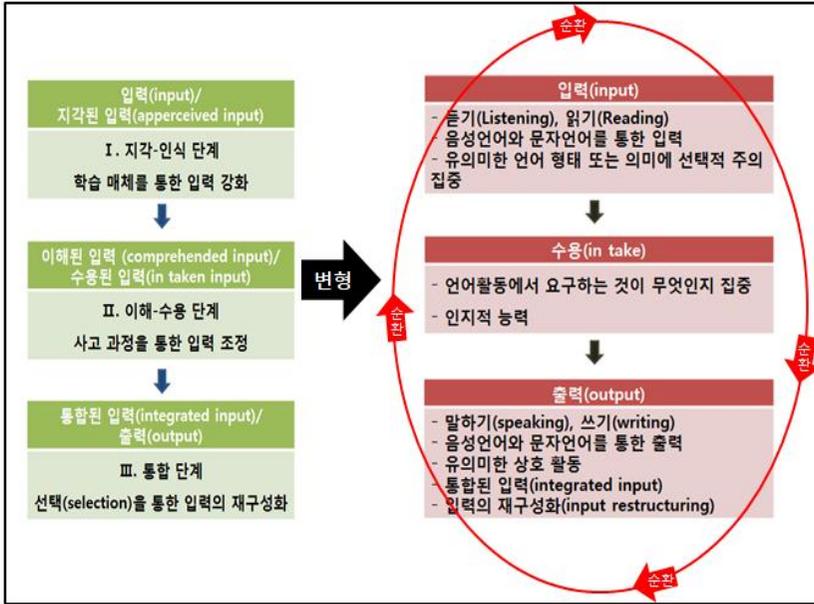
<sup>15</sup> Gass(1988a)의 제2언어 습득 모형에서는 언어 이해의 차원에서 제2언어 학습자의 언어 입력에서부터 출력에 이르기까지의 단계와 관련 요소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입력(comprehended input)'이라고 한다. '이해된 입력'은 보다 판단적, 분석적 사고를 요한다는 점에서 앞선 '지각(또는 인식)된 입력'과는 구별된다.

한편, 알아차리고 이해한 입력만이 습득에 필요한 '수용(intake)'이 되는데, 그렇다고 이해된 입력 모두가 다 수용되는 것은 아니다. '수용(intake)'은 언어 자료를 동화시키는(assimilating) 과정이다. 수용은 입력과 문법 사이에서 조절을 하는 정신적 활동이다. 언어의 단편에 선택적 주의를 기울여 추출된 입력과 보다 분석적인 방식으로 개념을 통하여 이해된 입력이 곧 수용(intake)이 되기 위해서는 언어 체계 및 규칙으로서의 '문법'에 기반한 가설 형성(formation)-검증(testing)-기각(rejection)-조정(modification)-확증(confirmation)의 과정이 요구된다. Corder(1967)은 입력(input)과 수용(intake)간의 중요한 구분을 지은 바 있는데, 입력이 학습자에게 이용 가능한 것을 의미하는 반면, 수용은 학습자가 실제적으로 '내면화한(internalized)', '수용된(taken in)'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지각·인식된 입력, 이해된 입력, 수용은 언어 습득 과정에 있어서 각각 다른 인지 활동과 속성에 따라 구분된다. 또한 이해 및 수용 단계에서 학습자들은 맥락 내에서 언어 체계에 따른 규칙을 발견하거나 의미를 조정하는 작업을 통하여 보다 심층적인 언어 습득의 상태로 접어들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언어 체계 및 규칙을 기반으로 가설의 형성으로부터 확증에 이르는 과정을 통하여 입력이 재구조화 또는 재구성화 되는데, 이를 입력의 '통합(integration)'단계라고 한다. 이 단계에서는 기존의 습득된 입력과 관련하여 강화 또는 첨가하거나 파괴 또는 경신하는 인지 활동이 일어나게 된다. 이러한 입력의 통합은 언어 자체로만이 아니라 실제 언어활동에서의 맥락과의 상호 작용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이때 '맥락'이란 언어 운용자로서 학습자들의 인지적, 정의적 측면과 언어활동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가리키는데, 여기에는 선형 지식 및 경험, 동기, 개성 태도뿐만 아니라 언어 장면 또는 사용역 등이 포함된다. 학습자들은 언어활동과 관련된 맥락의 모든 요소들 가운데 일부를 선택하여 수용된 입력을 그에 맞게 전환하는, 즉 재조직화 또는 재구성화 함으로써 '통합된 입력'단계에 들어서게 된다. 통합 단계에서 특히 중요한 요소는 언어 처리 혹은 언어 접근의 자동화, 자율화이다. 그리고 제 2 언어 습득 모형에 따르면, 이 단계 이후에 학습자들은 '출력(output)'단계를 밟는다. 언어 습득 모형을 변형을 중심으로 하여 전과 후로 구분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그림 3> 제 2 언어 습득론적 관점에서 이해 및 표현 처리 과정



<그림 3>은 제 2 언어 습득 단계 모형을 순환적 모형으로 변형하여 언어 기능 통합의 가능성을 넓게 보고 다양한 통합 유형에 따른 교육 방안 에 대하여 제안할 경우와 이로써 제 2 언어 습득론적 관점에서 이해 및 표현 처리 과정을 기반으로 하여 상호적 의사소통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 3.2. ‘R-W’형 기능 통합 언어활동 제안

‘읽기’와 ‘쓰기’는 문자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에서 공통점이 있다. 또한 이해 영역에 속하는 읽기 기능과 표현 영역에 속하는 쓰기 기능은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읽기→쓰기’의 과정에서 학습자들은 쓰기 활동을 잘 수행하기 위해 선행되는 읽기 활동에 주목해야 한다. 쓰기 활동은 텍스트를 이해하고 수용한다는 전제하에 수행되는 것이므로 쓰기 기능과 읽기 기능은 그 관계가 매우 밀접하고, 두 기능의 통합은 자연스럽다. 이처럼 ‘R-W 형’은 가장 기본적인 언어활동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기능 통합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더불어 언어활동 상황에서 ‘R-W 형’ 과정이 진행된 이후의 활동에 따라 크게 확장된 하위 통합 유형이 나타날 수 있다. 첫째, ‘R-W 형’의 확장형 1 ‘R-W-S 형’과, 둘째, ‘R-W 형’의 확장형 2

‘R-W-S-L 형’인데, 본고는 ‘R-W’형에 속하는 언어활동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표 5> ‘R-W 형’의 확장형 1 ‘R-W-S’형 기능 통합 정보

‘R-W-S’형 기능 통합 정보
<p><b>* R-W-S 형</b></p> <p>▶ 언어 출력 장치 언어 사용자(학습자)</p> <p>&lt;학습자 1&gt; R: 언어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텍스트를 읽는 행위 W: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쓰는 행위 S: 쓴 내용을 말하는 행위</p> <p><b>* 추가 확장</b> &lt;학습자 2&gt; L: 쓴 내용을 말할 때 듣는 행위</p>

위의 <표 5>는 본고에서 ‘R-W-S 형’에서 나타나는 언어 입력 및 출력 관계를 제시하면서 기능 통합 정보를 제시하였다. ‘R-W-S 형’은 먼저, ‘읽기→쓰기’ 과정을 거친다. 이때 학습자들에게는 언어 입력 장치인 읽기 자료인 텍스트가 제공된다. 학습자들은 언어 입력 장치인 이해 영역 ‘읽기’ 활동을 통해 언어활동을 수행한다. 이 학습자는 읽기 활동을 수행하여 입력된 내용을 이해하고 수용한 후, 이와 관련하여 이해하고 수용한 바를 ‘쓰기’ 활동을 통하여 언어활동을 수행한다. 이때 ‘쓰기’ 활동은 언어활동 수행자 중 일부 학습자가 될 수 있고, 또는 다수 학습자가 될 수 있다. 여기서 쓰기 활동을 통해 생성된 텍스트는 언어 사용자가 언어 출력 장치로써 ‘말하기’ 활동을 통해 언어활동을 수행한다. 즉, 읽기→쓰기→말하기’ 활동을 수행하고, 더 나아가 ‘듣기’ 활동까지 수행될 경우 학습자들 간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상호적 의사소통 활동을 활발하게 수행될 수 있는 언어활동이다.

<그림 4> ‘R-W-S 형’기능 통합 언어활동 예시

■ 언어활동 ■

“감상문 쓰기”



▶ ‘세종대왕’의 전기문 줄거리를 읽고 느낀 점을 쓰고 발표하기

어느 날 세종이 집현전의 학자들을 모아 놓고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포부를 이야기했다. "나에게는 예전부터 생각해오던 꿈이 하나 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하오."

학자들은 아무도 세종의 꿈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모두 궁금한 얼굴로 서로 쳐다보았다.

"나는 이 나라의 임금으로서 백성들이 편하게 살아가게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오. 우리에게는 말은 있으나 글이 없어 백성들이 불편해 하고 있소. 자기 나라의 글이 없는 민족은 그 나라의 문화를 가꾸어 나갈 수 없다고 생각하오. 그러니 여러분들이 나를 도와 우리글을 만드는데 전념해 주셨으면 하오."

이 말을 들은 집현전의 모든 학자들은 세종의 백성을 사랑하고 문화를 빛내고자 하는 투철한 염원에 놀랐다. 세종은 우리글을 만드는데 필요한 사람의 여러 가지 입 모양과 글씨가 적혀있는 두루마리 종이를 꺼냈다. "중국의 한자는 물건의 모양을 본 딴 글자이나 우리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는 표음문자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오. 이 입 모양을 여러 개 만들어, 이 모양을 본을 따 우리글의 기본을 정하면 어떨지 오랫동안 생각하여 만든 것이오. 이 원칙에 따라 모든 것이 순서 있게 진행되면 좋을 듯하오." 세종의 이와 같은 신념, 열정과 더불어 신숙주, 박팽년, 이개, 정인지, 성삼문, 최항, 이선로 등 여러 집현전 학자들의 노력으로 마침내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한글이 탄생하게 된다.

권영민(2004), <한국현대문학대사전>

위의 <그림 4>는 ‘R-W-S’형 기능 통합 유형에 적용한 언어활동이다. 이 언어활동은 “감상문 쓰기”를 소재로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세종대왕의 전기문을 읽고 느낀 점을 쓰고 발표하는 활동이다. 이 언어활동을 제 2 언어 습득론적 관점에서 따라 이해 및 표현 처리과정을 거쳐 수행 단계를 제시하면 아래의 <표 6>과 같다.

<표 6> “R-W-S 형”이해 및 표현 처리 과정

▶ ‘R-W-S 형’기능 통합 언어활동 1 단계

▶ 입력 1-입력 강화	▶ 입력 1-입력 강화
- 읽기(Reading)/문자언어 - ‘세종대왕’ 전기문 읽음 - 과제를 염두에 두고 유의미한 언어 형태 또는 의미에 선택적 집중	- <그림 4>에서 ‘세종대왕’의 전기문 줄거리를 제시하였다. 학습자들이 이 글을 집중하여 읽고 내용을 이해한다.

▶ ‘R-W-S 형’기능 통합 언어활동 2 단계

▶ 수용-인지적 능력	▶ 수용-인지적 능력
- 전기문을 읽고 느낀 점을 쓰고자 세종대왕에게 배울 점 또는 세종대왕의 업적 파악 (밑줄 긋기)	- 세종대왕의 전기문 줄거리를 읽고 느낀 점을 쓰고 발표하기 위해 세종대왕에게 배울 점 또는 세종대왕의 업적을 파악한다. ① 집현전의 모든 학자들은 세종의 백성을 사랑하고 문화를 빛내고자 하는 투철한 염원에 놀랐다. ② 나는 이 나라의 임금으로서 백성들이 편하게 살아가게 할 의무가 있는 사람ियो. ③ 우리에게는 말은 있으나 글이 없어 백성들이 불편해 하고 있소. 자기 나라의 글이 없는 민족은 그 나라의 문화를 가꾸어 나갈 수 없다고 생각하오. 그러니 여러분들이 나를 도와 우리글을 만드는데 전념해 주셨으면 하오. ④ 중국의 한자는 물건의 모양을 본 딴 글자이나 우리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는 표음문자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오. ⑤ 세종의 이와 같은 신념, 열정과 더불어 신숙주, 박팽년, 이개, 정인지, 성삼문, 최항, 이선로 등 여러 집현전 학자들의 노력으로 마침내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한글이 탄생하게 된다.

▶ ‘R-W-S 형’기능 통합 언어활동 3 단계

▶ 출력 1(output)	▶ 출력 1(outpu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쓰기(speaking)/문자언어</li> <li>- 느낀 점 쓰기</li> <li>- 통합(integration)</li> <li>‘쓰기-말하기’통합 전 단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앞에서 수용한(밑줄 그은) 세종대왕에게 배울 점 또는 세종대왕의 업적을 정확한 표현으로 쓴다.</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lt;쓰기&gt;</b></p> <p>세종대왕은 이 나라의 임금으로서 백성들이 편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한 위인이다. 특히, 우리에게는 말은 있으나 글이 없어 백성들이 불편해 하고 있어 ‘자기 나라의 글이 없는 민족은 그 나라의 문화를 가꾸어 나갈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p> <p>따라서 중국의 한자와는 달리 우리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는 표음문자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세종의 이와 같은 신념과 열정과 더불어 여러 집현전 학자들의 노력으로 마침내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한글이 탄생하게 된다.</p>

▶ ‘R-W-S 형’기능 통합 언어활동 4 단계

▶ 출력 2(output)	▶ 출력 2(outpu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말하기(speaking)/음성언어</li> <li>- 느낀 점 말하기</li> <li>- 통합(integration)</li> <li>‘쓰기-말하기’통합 단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습자는 앞에서 쓴 내용을 다시 교사 또는 동료 학습자들을 보고 발표한다.</li> <li>- 음성언어(구어)이므로 상대방에 따라 격식/비격식체를 선택한다.</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lt;말하기&gt;</b></p> <p>세종대왕은 이 나라의 임금으로서 백성들이 편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한 위인이다. 특히, 우리에게는 말은 있으나 글이 없어 백성들이 불편해 하고 있어 ‘자기 나라의 글이 없는 민족은 그 나라의 문화를 가꾸어 나갈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p> <p>따라서 중국의 한자와는 달리 우리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는 표음문자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세종의 이와 같은 신념과 열정과 더불어 여러 집현전 학자들의 노력으로 마침내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한글이 탄생하게 된다.</p>

위의 <그림 4>와 <표 5>는 제 2 언어 습득론적 관점에서 이해 및 표현 처리과정에 따라 제시한 ‘R-W-S 형’기능 통합 언어활동 예시이다. 이를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본고는 앞서 밝힌 바 있듯이 제 2 언어 습득 관점에서 ‘언어 입력’은 ‘입력 처리 지도’에 의해 설명된다고 앞서 밝힌 바 있다. 여기에서 ‘입력 처리’는 ‘입력’ 단계와 ‘수용’ 단계 사이에서 일어나는 ‘언어 처리 과정’이다.

본고는 ‘입력’ 단계와 ‘수용’ 단계를 구분하여 제시하였는데, 이는 학습자들은 언어 이해에 있어 받아들이는 입력 중 ‘이해 가능한 입력’을 중심으로 ‘수용’하고, 이러한 ‘수용’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입력 처리’가 된다. 본고에서는 이 과정이 <그림 4>에서 제시한 ‘R-W-S 형’기능 통합 언어활동에 적용해보면 ‘R-W-S 형’기능 통합 언어활동 1 단계 및 2 단계가 된다. 즉 학습자들이 ‘세종대왕’의 전기문 줄거리를 집중하며 읽을 때 반드시 과제를 염두에 두고 유의미한 언어 형태 또는 의미에 선택적 집중을 해야 한다. 이와 같은 집중은 언어를 입력 및 이해하기 위한 것이며, 입력 및 이해가 된 것은 밑줄 긋기와 같은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읽기>/문자언어 → 수용(1 단계→2 단계)**

“① 집현전의 모든 학자들은 세종의 백성을 사랑하고 문화를 빛내고자 하는 투철한 염원에 놀랐다./ ② 나는 이 나라의 임금으로서 백성들이 편하게 살아가게 할 의무가 있는 사람시오./ ③ 우리에게는 말은 있으나 글이 없어 백성들이 불편해 하고 있소. 자기 나라의 글이 없는 민족은 그 나라의 문화를 가꾸어 나갈 수 없다고 생각하오. 그러니 여러분들이 나를 도와 우리글을 만드는데 전념해 주셨으면 하오/ ④ 중국의 한자는 물건의 모양을 본 딴 글자이나 우리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는 표음문자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오./ ⑤ 세종의 이와 같은 신념, 열정과 더불어 신숙주, 박팽년, 이개, 정인지, 성삼문, 최항, 이선로 등 여러 집현전 학자들의 노력으로 마침내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한글이 탄생하게 된다.”

등과 같이 과제를 해결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부분에 밑줄을 긋는 것이다.

다음은 ‘R-W-S 형’기능 통합 언어활동 3 단계로서 언어 체계 및 규칙을 기반으로 가설의 형성으로부터 확증에 이르는 과정을 통하여 입력이 재구조화 또는 재구성화, 곧 입력의 ‘통합’ 단계라고 한다.

이 단계에서는 기존의 습득된 입력과 관련하여 강화 또는 첨가하거나 파괴 또는 경신하는 인지 활동이 일어나게 된다. 이러한 입력의 통합은 언어 자체로만이 아니라 실제 언어활동에서의 맥락과의 상호 작용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이때 ‘맥락’이란 언어 운용자로서 학습자들의 인지적, 정의적 측면과 언어활동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가리키는데, 여기에는 선행 지식 및 경험, 동기, 개성 태도뿐만 아니라 언어 장면 또는 사용역 등이 포함된다.

학습자들은 언어활동과 관련된 맥락의 모든 요소들 가운데 일부를 선택하여 수용된 입력을 그에 맞게 전환하는 재조직화 또는 재구성화 함으로써 ‘통합된 입력’ 단계에 들어서게 된다. 통합 단계에서 특히 중요한 요소는 언어 처리 혹은 언어 접근의 자동화, 자율화이다. 결국 이 과정은 아래의 <쓰기> 기능과 <말하기> 기능에 의해 재조직화 또는 재구성화 되어 출력 과정을 거친다.

#### <쓰기>/문자언어(3 단계)

“세종대왕은 이 나라의 임금으로서 백성들이 편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한 위인이다. 특히, 우리에게서 말은 있으나 글이 없어 백성들이 불편해하고 있어 ‘자기 나라의 글이 없는 민족은 그 나라의 문화를 가꾸어 나갈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중국의 한자와는 달리 우리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는 표음문자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세종의 이와 같은 신념과 열정과 더불어 여러 집현전 학자들의 노력으로 마침내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한글이 탄생하게 된다.”

#### <말하기>/음성언어(4 단계)

“세종대왕은 이 나라의 임금으로서 백성들이 편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한 위인이다. 특히, 우리에게서 말은 있으나 글이 없어 백성들이 불편해하고 있어 ‘자기 나라의 글이 없는 민족은 그 나라의 문화를 가꾸어 나갈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중국의 한자와는 달리 우리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는 표음문자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세종의 이와 같은 신념과 열정과 더불어 여러 집현전 학자들의 노력으로 마침내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한글이 탄생하게 된다.”

‘R-W-S 형’ 기능 통합 언어활동 3 단계에서 쓴 내용을 ‘R-W-S 형’ 기능 통합 언어활동 4 단계 말하기 기능을 통하여 전달, 즉 음성언어로 출력 과정을 거칠 때 음성언어이기 때문에 청자와 화자의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청자가 교사가 되는 경우가 있고, 동료 학습자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이 청자에 따라 격식체 또는 비격식체를 고려한다면, 입력 단계, 수용 단계, 출력 단계를 거치는 과정 속에서 읽기 기능, 쓰기 기능, 말하기 기능을 올바르게 활용하였다고 할 수 있고, 곧 언어 기능 통합 교육에서의 언어활동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 4. 마무리

지금까지 현재 한국어 교육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대학 내 한국어 교육기관에서 한국어 언어 기능을 통합하여 교수해야 한다는 통합 교육과정을 지향하고 있으나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 언어 기능 통합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기능 통합 언어활동 제시의 효율성에 관하여 논의하였고, 구체적으로는 ‘R-W’형의 확장형 1인 ‘R-W-S’형 기능 통합 언어활동 활용 방안, 즉 효율성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R-W-S’형은 세 가지 이상의 언어 기능이 통합된 유형으로 언어활동을 수행할 때 단일 기능만을 사용하여 언어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읽기, 쓰기, 말하기, 더 나아가서는 듣기 기능을 활용하여 언어의 네 기능의 중요성, 연관성 등을 알려줄 수 있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학습자들이 좀 더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상호적 의사소통 활동을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읽기와 쓰기 기능은 복합적인 사고와 고도의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기능이므로 개별적인 언어 사용 능력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sup>16</sup>

### 참고문헌

1. 강숙희(2013), “초급 한국어 읽기·쓰기 교재 개발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 김은혜(2008), “이야기를 활용한 과업 중심 학습이 초등학생들의 영어 듣기·말하기 능력에 미치는 영향”, 전주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 김형근(2002),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읽기와 쓰기 교수 학습에 관한 통합적 연구”,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4. 김보은(2015), “‘총체적 언어 접근법’ 기반의 한국어 기능 통합 교육 연구”, 청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5. 김정숙·원진숙(1992),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의 반성과 새로운 방법론 모색”, <어문논집> 31-1, 안암어문학회, pp. 117~141.
6. 김정숙(2003), “통합 교육을 위한 한국어 교수요목 설계 방안 연구”, <한국어 교육> 14-3, 국제한국어교육학회, pp. 119~142.
7. 김지영(2007), “보고서 쓰기와 발표하기를 통합한 한국어 고급 단계의 프로젝트 수업 연구-학문 목적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 18-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pp. 49~79.
8. 김희숙(2001), “한국어 세계화와 영어공용화론 시장원리문제”, <한국어 의미학> 8, 한국어의미학회, pp. 323~358.
9. 김희숙(2008), “‘인터페이스(interfacing)’언어를 이용한 새로운 한국어 교육방법”, <언어학연구> 13, 한국중원언어학회, pp. 31~52.
10. 김희숙(2008), “21 세기와 한국의 사회언어학”, <한국어학> 31, 한국어학회, pp. 1~30.
11. 김희숙(2011), <21 세기 한국어정책과 국가 경쟁력>, 소통.

<sup>16</sup> 여기에 속한 언어활동에는 본고에서 제시한 언어활동 이외에도 텍스트를 읽은 후, 설명문을 쓰고 발표하기, 기사문을 읽고 이에 대한 나의 생각을 쓰고 발표하기 등과 같은 언어활동이 제시될 수 있다. 이와 같이 ‘R-W-S’형의 다양한 언어활동은 학습자들의 언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언어 기능 통합 교육의 목적에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데 의의를 두고 논의를 마치겠다.

12. 민현식(2008), “한국어교육을 위한 문법 기반 언어 기능의 통합 교육과정 구조화 방법론 연구”, <국어교육연구> 22,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pp. 261~334.
13. 박진희(2013), “상호작용과 영역 통합 활동 중심의 듣기 교육 방안”, 전남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4. 방성원(2000), “통합 교수를 위한 교재 개발 연구”, <한국어 교육> 11-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pp. 111~131.
15. 백아영(2014), “학문 목적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이해 영역과 타 영역 간의 연계성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6. 오지혜(2012), “시적 텍스트 변형을 통한 한국어 어감 이해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7. 이성희(2008), “한국어 교육에서의 읽기, 쓰기 통합교육 연구”, <이중언어학> 37, 이중언어학회, pp. 113~131.
18. 이준호(2011), “듣기 활동의 다양성 분석 연구”, <한국어학> 52, 한국어학회, pp. 149~176.
19. 이해영(1999), “통합성에 기초한 교재 제작의 원리와 실제: 듣기 능력 향상을 위한 모색”, <한국어 교육> 10-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pp. 273~294.
20. 정운규(2013), “학문 목적 한국어 교육을 위한 언어 기능 통합 과제 유형연구”, 세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1. 조영철(2011), “CIRC 프로그램을 활용한 한국어 읽기·쓰기 통합 교육 방안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2. 최유하(2012), “학부 강의 중 PPT 발표를 위한 과제 중심 학문목적 한국어 읽기, 쓰기 통합교육 방법 연구”,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201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pp. 198~214.
23. Anderson, R. C., & Pearson, P. D.(1984), “A schema-theoretic view of basic processes in reading”. In P. D. Pearson, R. Barr, M. L. Kamil, & P. Mosenthal (Eds.), *Handbook of reading research*, pp. 255~291. White Plains, NY: Longman.
24. Braid, S. M.,(2001), <제 2 언어 통사론 습득>, 최숙희 옮김, 동인.
25. Carroll, D. W.,(2009), <언어심리학>, 이광호·박현수 옮김, 박학사.
26. Freeman, D. E., & Freeman, Y.(1994), “Whole language principles for bilingual learners”, In A. D. Flurkey & R. J. Meyer (Eds.), *Under the whole language umbrella: Many cultures, many voices*, pp. 240~263, Urbana, IL:National Council of Teachers of English.
27. Freeman, Y. S. & Freeman, D. E.(1992), *Whole language for second language learners*. Portsmouth, NH: Heinmann,
28. Goodman, K.(1986), *What's Whole in Whole Language?*, Portsmouth, New Hampshire: Heinemann.
29. Nunan, D.,(2009), <외국어 학습 연구 방법론>, 안미란·이정민 옮김, 한국문화사.
30. VanPatten, B.,(2004), “*Processing Instruction: Theory, Research, and Commentary*”,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